

광주FC 안영규 “포항과의 최종전에서 웃겠다”



광주FC의 안영규가 'MVP 후보'의 자존심을 걸고 최종전 승리를 이끈다. 광주는 12월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K리그 1 2023 38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시즌 최종전이 광주 '아시아 무대' 꿈이 걸린 중요한 경기다.

광주는 지난 25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하면서 3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이 승점 4점 차 4위로 광주를 위협하고 있고, '뒷심'이 강한 인천유나이티드가 상승세를 타면서 승점 2점 차 5위로 광주 자리를 노리고 있다.

광주는 포항전 승리로 3위를 지키고,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주장' 안영규가 광주 전면에 선다.

지난 시즌 광주 캡틴을 맡아 팀의 우승을 이끌고 K리그2 MVP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던 안영규는 K리그1에서도 매서운 실력을 보여줬다.

주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광주 돌풍의 중심이 됐고, 철벽 수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 광주는 올 시즌 37경기를 하는 동안 단 35골만 내주면서 전복(34실점)에 이어 최소실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올 시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무조건 공격'에 나서면서 파이널A를 넘어 팀 창단 최고 순위 기록도 작성했다.

베테랑 수비수와 팀의 주장으로서 모두 완벽한 역할을 한 안영규는 K리그1 MVP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7일 K리그 개인상 후보선정위원회를 열고 올 시즌 K리그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선수상(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 11 부문의 4배수 후보를 선정, 발표했다.

12월 3일 광주 홈구장서 대결
"MVP 후보 자존심 걸고 승리
'아시아 무대' 진출 하고파
자력으로 3위 지킬 수 있다"

연맹 기술위원회(TSG) 소속 위원,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 구단이 제출한 부문별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기록 지표와 활약을 고려해 안영규와 함께 김영권(울산), 제카(포항), 티아고(대전)를 MVP 후보로 낙점했다.

'MVP 후보' 안영규는 이목이 쏠린 최종전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는 등 뜨거웠던 광주의 기세가 주춤해진 만큼 주장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그라운드에서는 포항을 완벽 봉쇄해야 한다.

최후의 승부를 앞둔 안영규는 "우리가 3위다"며 자신감 있는 승부를 예고했다.

안영규는 "매 경기 그 주에 있는 경기만 생각하면서 전복전을 준비했는데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안일한 대처로 어렵게 실점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갔고, 결과를 못 냈다.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집중을 끝까지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3위고,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를 분석하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준비한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못 보여줬다"며 "남은 한 경기 홈에서 하는 만큼 많은 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광주FC가 12월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최종전에서 3위 확정을 노린다. 주장 안영규가 승리를 위해 선수단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MVP는 12월 4일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는 '2023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자는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2부 리그 노리치시티서 2경기 연속 골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배제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 때까지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배제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소속팀에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황의조는 29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23-2024 잉글랜드 풋볼 리그(EFL) 챔피언십(2부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 노리치시티의 선발 공격수로 출전, 전반 12분 2-0을 만드는 골을 넣었다.

황의조의 이번 시즌 리그 3번째 득점이며, 26일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의 17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이다.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는 전남 대한축구협회가 구성한 논의 기구의 회의 결과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에 뽑힐 수 없게 됐다.

황의조는 올해 6월 사건 시작 이후 계속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고, 9월, 10월, 11월 A매치 총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특히 이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홈 경기 이후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전 이후 영국으로 돌아간 황의조는 QPR전에 선발 출전해 골을 넣었고,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잠정 배제가 결정된 뒤 이날도 소속팀 경기엔 선발로 나서서 골맛을 봤다.

이날 경기 시작 3분 만에 나온 대니 배스의 골로



황의조

노리치시티가 앞서 나간 전반 12분 황의조는 페널티 아크 뒤쪽에서 때린 강한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팀에 두 번째 골을 넣었다.

하지만 황의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경기를 더 이어가지 못한 채 전반 17분 에슬리 반스로 교체돼 나갔다.

이후 노리치시티는 전반 30분 이스마엘 코넬을 시작으로 왓퍼드에 3골을 내리 내주며 2-3으로 역전패했다. 3연승이 좌절된 노리치시티는 리그 14위(승점 23)에 자리했고, 왓퍼드는 13위(승점 24)에 올랐다.

/연합뉴스



이강인이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뉴캐슬(잉글랜드)의 2023-2024 UCL 조별리그 F조 5차전에 선발 출전해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UCL 첫 선발 경기 평점 6.8 '무난'

PSG, 뉴캐슬과 1-1 무승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치른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이강인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뉴캐슬(잉글랜드)의 2023-2024 UCL 조별리그 F조 5차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37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경기는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PSG 킬리안 음바페의 극적인 페널티킥 동점골에 1-1로 끝난 가운데 이강인은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으로부터 6.8의 평점을 받았다.

4-3-3 전형의 미드필더로 출전한 이강인은 슈팅 3개와 9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풋볼 역시 이강인에게 7.3의 무난한 평점을 매겼다. 선발 출전 선수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다.

발렌시아(스페인)에서 뛰던 2019-2020시즌 UCL 선발 데뷔전을 치른 바 있는 이강인은 이날 PSG 유니폼을 입고서 처음으로 선발로 UCL 경기를 소화했다.

또 지난 12일 맨스와 리그1 경기 이후 공식전 2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했다.

A매치 기간 직후 치러진 지난 25일 모나코와 리그 경기에서는 이강인이 출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부상' 차준환, 왕좌 지켜낼까...피겨 대표팀 선발전 열려

2024-2025시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를 뽑는 1차 선발전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의 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을 비롯해 여자 싱글 에이스 신지아(영동중), 이해인(세화여고), 김예림(단국대) 등 주요 선수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선수들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인 2023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성적과 내년 1월에 열리는 2차 선발전 겸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차기 시즌 국가대표는 남자 싱글 4명, 여자 싱글 8명 등 총 12명이 선발된다. 아이스댄스 등 단체전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1차 선발전엔 내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선수권대회 출전권도 걸려있다. 남녀 싱글, 페어 및 아이스댄스 상위 3위까지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번 선발전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매년 차준환이 우승했던 남자 싱글도 마찬가지다. 차준환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준환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심한 통증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

린 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현재 몸 상태도 그리 좋진 않다. 그러나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돼 통증을 감수하고 출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엔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친 어린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씩을 목에 건 임주현(수리고), 김현겸(한광고)이 차준환의 아성에 도전한다.

여자 싱글에선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주요 선수들이 모두 나선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진해 태극마크를 잃었던 유영은 1년 만에 재기를 노린다.

올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부진을 거듭하며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이해인과 김예림도 몸 상태를 추스르고 국내 팬 앞에 선다.

지난해 도전자의 입장에서 은반 위에 섰던 신지아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남녀 시니어 쇼트프로그램은 12월 2일, 프리스케이팅은 12월 3일에 열린다.

아이스 댄스는 임해나-취안예(경기일반)조가 유일하게 출전한다. /연합뉴스